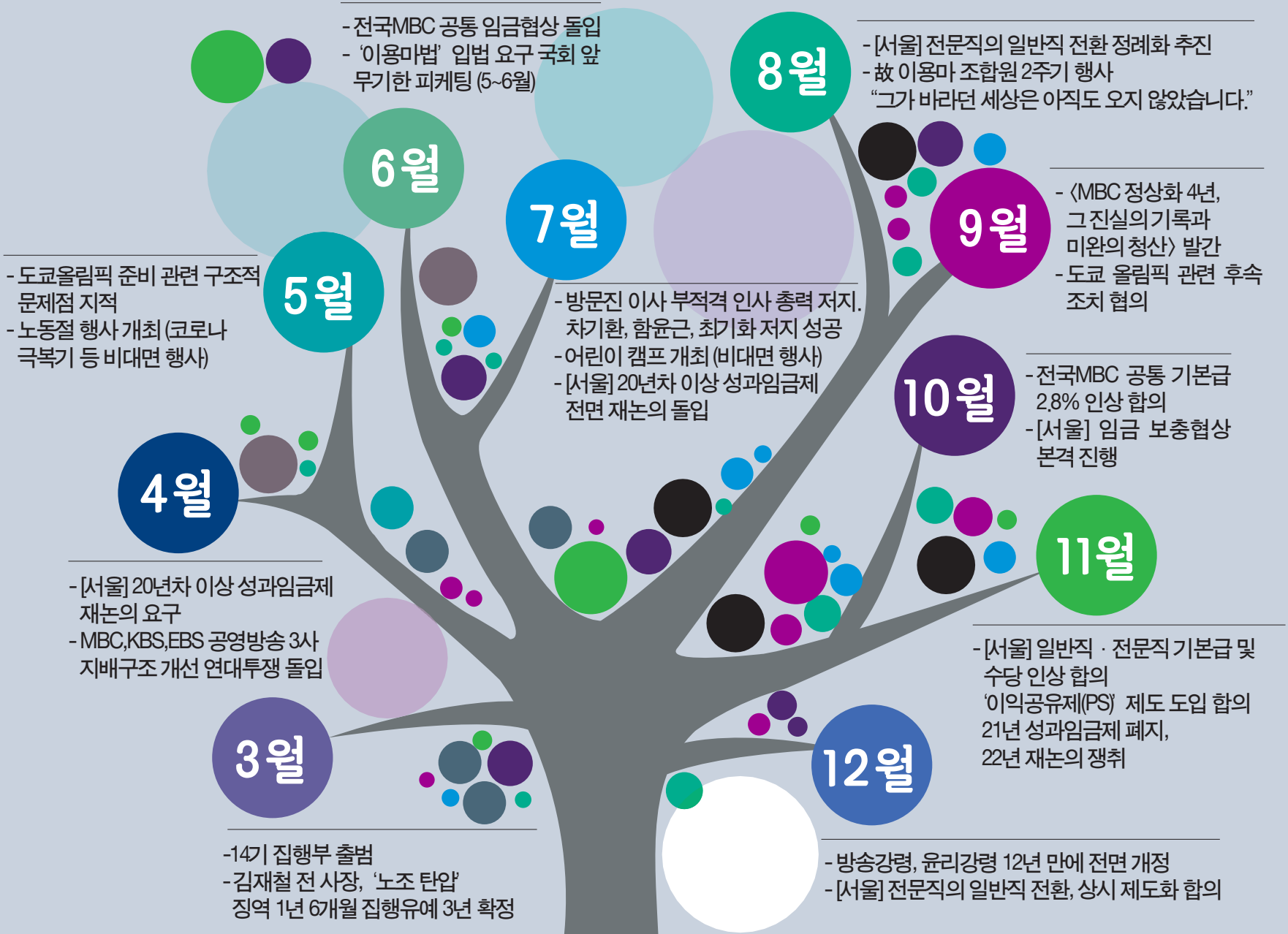


문화방송 노보

발행인 최성혁
편집인 이지선
편집 송옥분
주소 서울 마포구 성암로 267
MBC 경영센터 2층
TEL 02_789_3881~6
FAX 02_782_0135
www.mbcunion.or.kr
2021년 12월 29일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MUNHWA BROADCASTING UNION

2021년 조합 결산



조합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4기 집행부가 조합원 동지들에게 약속드립니다 “내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1년 세밑입니다. 14기 집행부로서 첫 해를 보냅니다. 암울한 코로나 시대임에도 조합원 여러분이 공영방송 MBC의 위상과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마음을 최대한 읽어내려 노력하고 소통하면서 회사를 상대로 많은 의제를 던졌습니다. 그 결과 경영성과공유, 성과임금제 재논의, 전문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경력 사다리’ 제도 정례화, 방송강령 개정 등 많은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협상 테이블마다 노사 모두 최선을 다했고,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올해 임금협상에서는 전국 MBC 17개 지부의 단일 기본급 일괄 인상이라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전국 단일 노조인 MBC본부가 회사를 상대로 한 공통교섭에서 성공적으로 기본급 인상을 이끌어낸 것은 지난 2011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또한 서울지부의 경우 전문직의 일반직 전환 ‘경력 사다리’ 제도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이미 도입된 호봉표 신설, 직급제와 함께 약 15년 전부터 조합이 요구해 온 소위 ‘중

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였습니다.

반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쉽게도 성과를 내지 못한 과제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이른바 ‘이용마법’ 입법을 위한 투쟁이 아직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방송된 창사 6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이용마 기자들의 마지막 리포트’를 보며 많은 조합원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용마법’은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신념, 촛불을 들었던 국민을 잊지 말자는 당부,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는 다짐과 함께故이용마 기자가 생전에 염원했던 또 하나의 바람이었습니다. 정치권력이 언론을 장악하면 진실이 은폐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 언론개혁의 핵심인 이유입니다.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을 배제하고 시민참여 방식을 도입하자는 ‘이용마법’, 내년에는 반드시 쟁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올해 조합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들을 잘 모아 내어 단단하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는 내년에도 조합원 동지들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 ‘기회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MBC를 비롯한 KBS,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영방송의 거버넌스를 정치권력에서 독립시켜 ‘시민참여’와 ‘공론’, ‘숙의’에 기반한 방식으로 바꾸는 개선 법안은 과연 대선 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국회 논의 기구인 ‘언론·미디어제도 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 국회는 그러나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제(28일) 열린 언론특위 전체 회의는 활동 기한 연장 외에는 또다시 아무런 소득 없이 무책임하게 끝나버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시민대표단 등이 숙의를 통해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국민의힘은 지금처럼 정치권 추천 이사들이 사장을 뽑되 이사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의결정족수제를 주장했다. 여야의 입장차는 선명했고 양당 사이에 접점은 없었다. 합의의 의지 역시 보이지 않았다.

국회는 정말 이대로 논의하는 시늉만 하다 ‘빈손 특위’라는 불명예로 활동을 마치려 하는가.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지난 21일 국회 앞 언론 현업 6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용마법을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시간들이 끝나가고 있다”며 “특위의 활동기한을 내년 초까지 연장하고, 반드시 대선 전에 이용마법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고작 70여일에 불과하다. 지난 1년간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해 온 민주당에게 지금의 상황이 낯뜨겁지 않은지 묻고 싶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지난 14일 관훈토론회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면 공영방송을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윤

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MBC 출신 이진숙, 황희만, 최재혁, 원만식 등은 모두 이명박 정권 당시 원세훈 국정원의 MBC 장악 음모에 동조한 인물들로 언론인의 양심을 버리고 처참히 MBC를 망가뜨렸던 공범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그나마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 왔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다. 투병 중이던故 이용마 기자를 찾아와 MBC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인 후보가 정작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임기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을 말이다.

앞으로의 두 달이 그래서 더 중요하다. 정치권력의 향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MBC의 고질적인 정치병행성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오랜 과제이자 우리의 숙원이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고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여 민주적 여론 형성이 가능하게 하려면 공영방송 사장 역시 민주적 공론에 의해 선출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힘 역시 ‘공영방송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부르짖던 구호가 진심이라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국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을 반드시 대선 전에 완수하라.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의 시간’을 이번에도 놓쳐버린다면 국회는 공영방송을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은 주범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2021년 임협-서울지부 보충협상

이익공유제 도입 직원들과 경영성과 공유 '제도화'

회사가 달성한 이익의 일부를 직원들과 함께 나누는 '이익공유제(Profit Sharing)'가 도입됐다.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는 회사와 5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이 같은 제도를 매년 상시 가동하는 안에 합의했다. 회사의 연간 영업이익이 250억 원 이상일 경우 해당 이익의 20%를 직원들과 나누도록 명문화 한 것이다.

영업이익 250억원 이상이면 20% 공유

통상성과급은 일회적 성격으로 경영진의 호혜적 결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지난 2007년과 2011년에 있었던 성과공유 제도는 노사합의에 따라 영업이익 기준을 설정하긴 했으나 한시적인 성격의 제도였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이익공유제'는 분명하게 명시된 기준에 따라 회사가 회사의 이익 일부를 구성원들과 반드시 공유하도록 '상설 제도화'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조합이 퇴직금 누진제 폐지 등 최근 3년 간 회사의 비상경영으로 조합원들이 감내해야 했던 크나큰 희생에 대해 적정 수준의 보상을 요구한 결과이며, 회사의 경영성과는 경영진만이 아닌 임직원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것이라는 노사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일반직·전문직·촉탁직 모두 PS 대상 휴직자도 일할 지급

조합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연말 성과급의 지급 대상은 통상적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 한정된다. 올해는 MBC가 10여 년 만의 최대 경영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PS 규모 역시 과거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누구 하나 억울한 사람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익이 공유될 수 있도록 올해에 한해 휴직자들도 2021년 실제 근무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PS를 받을 수 있도록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성과임금제 시행 유예 20년차 이상 특별상여 전액 지급

올해는 '성과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 언론노조 MBC본부 서울지부가 지난 8개월 간 회사를 상대로 성과임금제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결과이다. 이에 따라 대상자인 20년차 이상 직원들은 지난 1차~3차 특별상여(설, 체력단련, 추석) 당시 미지급된 금액을 지난 10일 전액 지급받았다. 이 달 말에 예정돼 있는 4차 특별상여(기본성과인센티브) 역시 감액없이 모두에게 전액 지급될 예정이다.

조합은 올해 4월부터 노사협의회를 통해 '성과임금제' 평가체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제도 시행 자체를 전면 재논의 할 것을 꾸준히 회사에 요구해 왔다. 특히 비상경영의 일환으로 '성과임금제' 도입이 결정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영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만큼 '고통 분담'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 자체가 불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 결과 올해 고연차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임금 손실을 100% 막아내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내년도 성과임금제는 별도 협의 '마이너스섬' 방식은 반드시 수정돼야

2022년도 성과임금제 시행은 내년에 노사가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조합의 입장은 처음과 변함이 없다. 회사의 경영실적을 떠나, 근본적으로 현재와 같은 '마이너스 섬' 방식의 불합리한 성과임금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금의 모호한 평가체계 하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조합은 내년도에 이 같은 기조로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사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문직의 일반직 전환 2년 마다 '사다리' 놓인다

올해 14기 집행부가 가장 공들인 과제 중 하나는 바로 전문직의 일반직 전환을 '상설 제도화' 하는 것이었다. 능력 있는 전문직 직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경력 사다리(Career Ladder)'가 어찌다 한번은 좋게 놓였다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합의 하에 제도화 하여 '정기적'으로 놓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른바 '열린 조직'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조합 집행부 출범 때부터 가졌던 목표였다.

'상설 제도화' 첫 성공.. '열린 조직' 기틀 마련

조합은 최근 회사와 전문직의 일반직 전환을 매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다. 내년도인 2022년부터 시작해 2년 단위로 시행하며, 전문직으로 임용된 지 만 5년 이상 된 직원이라면 누구

나 지원할 수 있다. 전환을 희망하는 직원은 지원서를 제출하여 전환 평가에 응시할 수 있고, 직무평가와 개인 역량 평가 등을 통해 선발된 사람은 다음해 1월1일자로 일반직 발령을 받게 되는 방식이다. 조합은 회사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세부내용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에 합의안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전보다 더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난 MBC"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번 노사 합의에 대해 "가장 큰 의미는 우리 MBC가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층과 층이 단절되어 있는 조직은 건강하지 않으며, 전문직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라도 능력에 따라 더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 같은 절차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한 것이 이번 합의에서 가장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지난 1월,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본사 전문직 35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됐다. 이제는 2년마다 지속적으로 기회가 열리게 된다. 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들의 이해를 조화롭게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노사협의회 지상중계

“드라마 예산 확대 환영.. 풍선효과는 없어야”

올해 영업이익 1,000억 원 안팎 추정

회사는 올해 3분기 말 기준으로 누적 영업이익이 939억 원 흑자라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68억 원 적자였던 것과 비교하면 1천억 원 이상 개선된 수치이다. 회사가 조합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동기 대비 수익은 875억 원 증가했고 비용은 132억 원 감소했다. 2021년 임금 인상 소급분 지급 등 연말 비용 이슈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연간 추정 영업이익은 무리 없이 1천억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게 경영진의 판단이다. 이처럼 유례없는 경영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드라마 제작 편수를 줄이고 퇴직금 단수제를 도입하는 등 제작비와 인건비를 줄여 만든 비용 효과도 있었지만 광고 수익이 작년 동기 대비 5백억 원 이상 늘고 해외 OTT와 유튜브 수익이 120억 원 이상 증가하는 등 콘텐츠 기업으로서의 비약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영업이익을 크게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내년 드라마 10편 제작.. 제작비 투자 최소 500억 원 최성혁 본부장 “타 제작부문 예산도 경직대선 안 돼”

조합과 회사는 결국 비용 절감보다는 콘텐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대규모 흑자 기초를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성제 사장은 “내년에는 드라마를 10편 정도 할 것 같다”며 “콘텐츠 제작에 최소 500억 원 이상 투자하겠다는 생각으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회사가 다시 콘텐츠 투자를 늘리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화답했다. 다만 “내년에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

지난 11월 16일, 교섭대표인 언론노조 MBC본부와 회사 경영진과의 4분기 노사협의회가 열렸다.

이날 조합과 회사는 2021년 경영 실적과 누적 성과에 관한 사항을 공유하고 내년도 제작비 예산 편성 계획,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 중계방송 준비, 전문직의 일반직 전환제도 도입,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비롯한 사내 비정규직 현황 및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벤트가 몰려있어 드라마 못지않게 수백억 원의 고정 제작비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풍선효과로 예능과 교양, 라디오, 시사 등 다른 제작부문의 예산이 경직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경영진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특별TF’ 가동 MBC 스포츠 신뢰 회복의 장 될 것

2022년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조합은 지난 7월 도쿄올림픽 중계사고로 공영방송 MBC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됐던 뼈아픈 경험을 지적하고, 베이징올림픽 준비상황과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사측에 물었다. 회사는 이번 겨울올림픽이 MBC스포츠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본다며 이미 지난 9월 말에 ‘베이징올림픽방송기획 특별TF’를 발족해 스포츠PD들이 다른 업무에 방해받지 않고 올림픽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MBC플러스에서도 8명의 PD를 조기에 파견 받아 협업 중이며, 1월 중에 추가 파견도 예정돼 있는 등 도쿄올림픽과 비교해 인력지원도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이에 대해 스포츠국 조직개편 이후 도쿄올림픽이 남긴 상처가 자칫 스포츠국 조합원들을 위축시키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스포츠PD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회사가 제작 관련 지원 뿐 아니라 홍보, 편성, 행정 등 스포츠 부문을 둘러싼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적시에 가능하도록 만전을 기해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편성위원회

방송강령·윤리강령 12년만에 전면개정

‘편성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완비 ‘제작진의 권한과 책임’ 명확화

MBC 정신의 근간이 되는 「방송강령」과 「윤리강령」이 이르면 다음 달 새롭게 태어난다. 전면 개정에 나선 건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12년 전 개정된 뒤 단 한 번도 바뀐 적 없는 방송강령을 시대의 흐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편성위원회 자리에서 전면 개정을 적극 제안했다. 노사는 이후 ‘방송강령 개정TF’를 발족하여 대대적인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사측에서는 개정TF가 키를 쥐고 개정안 초안을 만들었고, 조합에서는 보도·편제 민실위 간사와 보도·편제 부위원장이 주축이 되어 개정안 문구 하나하나에 대한 세부 논의를 이어 왔다.

조합은 이번 개정과정에서 ‘편성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완비에 중점을 두었다. 우선, 방송강령 전문 대신 방송 윤리 규범 및 핵심 가치에서 “방송의 제작과 편성의 독립성을 국민과 시청자

로부터 위임받고 있음을 주지하고, 불편부당한 공정방송으로 시청자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을 명문화했다. 특히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준칙」에서는 기본 원칙을 공명성·진실성·불편부당성·투명성으로 하고, 제작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했다. 다가올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비해 「스포츠 프로그램 제작준칙」을 신설했고, 20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선거방송 준칙」에 유권자 중심의 선거방송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내실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윤리강령」 역시 의사 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명확히 해 공영방송 언론인으로서의 시대적 요구사항을 반영시켰고,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에서는 인격권과 젠더 평등 등 달라진 사회 인식과 국민 정서를 반영시켰다.

수개월에 걸친 전면 개정과 제정 작업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자문기구인 공공성위원회의 검토와 의견수렴 단계만 남겨놓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 중에는 개정된 강령과 가이드라인이 편성의 독립과 제작 자율성을 공공히 해 공영방송으로서 MBC가 더욱더 신뢰받을 수 있는 토대가 되도록 조합은 만전을 기할 것이다.

조합원 목소리



홍의표 조합원
서울지부/보도

‘노동조합’을 처음 만난 건, 막 입사한 참이었던 3년 전 서울 성수동 거리였습니다. 오랜 세월 손가락이 굵어지도록 작업실에 앉아 구두를 만들던 제화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구두 한 켤레 당 받는 임금이 낮은 데다, 불량품 구두가 나오게 되면 노동자 혼자 손해배상 책임도 오롯이 져야 한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이런 노동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이 ‘노동조합 사람들’이었습니다. 좀처럼 잘 들리지 않는 현장의 사연을 듣고, 다소 과감해 보일 지라도 대신 나서서 어떻게든 조합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내는 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결국 ‘더 나은 단체협약을 맺게 됐다’며 노동조합이 알려진 소식을 받아본 기억이 선명합니다.

취재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노동조합의 주장은 임금 상승을 비롯한 처우 개선부터, 부당 해고와 직장 내 괴롭힘, 성 고충 문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연스레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를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막상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을 취재하며 그들의 주장을 듣고 검증하고 있지만, 아직 햇병아리인 4년 차 취재기자에 불과한 데다 매번 일에 쫓겨 시간이 없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저 스스로가 ‘노동자’로서의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았습니니다. 그렇기에 제 목소리를 대신 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노동조합이라는 큰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조합원이 된 지 불과 3년 정도에 불과합니다만, ‘제화 노동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 변화를 끌어낸 노동조합’의 사례를 곱씹다 보면 왠지 모를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입사 이후 수습 기간에 새벽부터 밤까지 곳곳을 다니며 취재할 때 들어간 교통비 내역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최근 받았습니다. 수습일지와 계좌를 들여다보니, 두 달 동안 받은 급여는 약 340만 원, 택시비를 비롯한 교통비는 3백만 원 정도로 나왔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신입 사원들은 되도록이면 같은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합에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노동조합이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해보려는 노력에 나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동조합을 취재한 뒤 ‘변화’가 생겼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기사를 넘어 한 사람의 노동자로서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은경 조합원
서울지부/경영

안녕하세요. 콘텐츠솔루션부 이은경입니다. MBC라는 회사로 이직하면서 그동안의 회사생활에선 경험하지 못했던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에 처음 가입하게 되어 설레고 기쁩니다. 회사에 나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조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단순히 개인으로서 회사 생활을 할 때보다 심리적인 안정감과 함께 소속감이 증대되는 기분입니다.

사실 조합에 가입한지 오래 지나지 않아 조합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조합에 바라는 점도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조’라는 단체를 생각했을 때 바라는 점은 있습니다. 언제나 회사와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의 유무와 관계없이 직원의 편에서 우리의 복지와 요구사항, 또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는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만큼, 회사도 우리의 노동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먼저 의견을 물어보지 않아도, 노조가 먼저 주체적으로 직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회사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내고, 문제를 제기하고,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연봉 인상과 더불어 이익공유제도 도입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노조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회사도 그를 통해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올해와 같은 좋은 결과가 매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도은 조합원
안동지부/보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줄 상상도 못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월부터 안동MBC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도은 기자입니다.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저는 4년 전인 2017년, 부산 MBC에 라디오 리포터로 입사했습니다. 입사 5개월 째, 대규모 파업이 진행됐고 비정규직이 방송을 채우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날, 퇴근 길에 ‘저는 부산MBC 비정규직 리포터입니다’란 제목의 글을 써 미디어오늘에 기고했

습니다.

퇴사를 선택한 건, 지금 돌이켜 봐도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기고 글에서 저는 옳은 것을 요구하며 사는 삶을 약속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기사가 됐습니다. 당시엔 두려움을 안고 썼던 글이었지만, 이후 제 삶의 이정표가 되어줬습니다. 다시 돌아온 MBC에, 한 뼉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사 글을 쓸 수 있어 행복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단순히 MBC의 구성원이 된 저를 소개하는 인사로 이 글이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말고도 라디오 리포터, 뉴스캐스터, 작가, 보도국 편집부 AD, 독립 PD들이 파업을 지지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지, 잘 지내는지, 그 이후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MBC를 바로 세우고 싶은 마음은, 어쩌면 고용 형태가 아닌 개인의 양심에 달린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옳은 가치를 지키기 위해 누군가는 회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부당한 것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권일 수 있다는 사실은 서글픕니다.

욕심이 삶의 공식이 된 오늘날 인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언론인, 우리의 삶은 행운에 가깝습니다. 이 특별하고도 소중한 기회가 우리의 안위만을 지키는 기득권으로 변질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MBC 노조가 이뤄낸 ‘연대’와 ‘단결’ 속에는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차별하지 않기를, 저라는 미약한 존재가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MBC가 함께 싸웠던 그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문화서점’에서 만나요!



“이따-시에 서점 앞에서 봐.” 회사 선후배들과 약속을 정할 때 늘 대화 말미에 달려 나오던 말. 그곳이 아니면 만날 장소가 없는 것도 아닌데 곧 죽어도 서점 앞에서 만나 함께 나가고 들어오던 사람들. 문화방송 직원이라면 누구나 친숙한 문화서점은 여의도 사옥 시절부터 33년 동안 우리 모두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약속 시간이 다 되어 로비에 내려가면 열이면 예닐곱은 서점 ‘앞’이 아닌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저런 책들을 들었다 놔다 들었다 놔다, 아무리 기웃기웃 들춰보아도 사장님 눈치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었지요. 그랬던 문화서점이 로비를 떠나 방송센터 지하1층으로 자리를 옮긴 지도 벌써 반 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눈과 발에서는 조금 멀어졌지만 여전히 책 내음과 정이 가득한 곳, 문화서점의 터주 대감 최상철 사장님이 조합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Q. 문화서점의 역사가 궁금해요.

A. '88서울올림픽이 끝난 이듬해였죠. MBC 여의도 사옥 로비에 책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간판도 없었어요. 그냥 구내서점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조합원이 멋진 붓글씨로 ‘文化書院(문화서원)’이라고 쓴 액자를 선물해주었어요. 25년 쯤 전으로 기억하는데, 지금까지도 서점의 명패처럼 한결같이 걸려있지요. 총무부에서 ‘문화서점’이라고 간판을 달아준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처음 MBC에 왔을 때는 저도 40대였는데 벌써 여든의 할아버지가 됐네요. 33년 동안 직원 여러분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Q. MBC 로비의 상징과도 같았던 서점이 지하로 이전하니 허전해요. 누구보다 사장님이 가장 많이 아쉬우실 텐데요.

A. 처음 지하 내려올 땐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전한 뒤에도 일부러 시간 내 찾아와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지하 식당가 오가면서 꾸준히 들려주셔서 처음보다는 좀 괜찮아졌어요. 점심시간이 끝나면 굉장히 적막해지는데 그것도 이제는 적응이 되어 갑니다. 다만 1층에 있을 때는 퇴직한 분들이 회사에 오시면 꼭 들러서 ‘여전히 친근한 곳은 여기밖에 없다’며 이야기 나누곤 했었는데, 그게 안 되는 점이 가장 아쉬워요.

Q. 33년이면 MBC의 산 증인이나 다름없으신데, 기억에 남는 일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A. 여의도 시절에는 서점이 만남의 장소였어요. 직원들이 오면 책 보면서 서로 인사도 밝게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어쩌나 유머러스한 분들이 많은지 웃음이 넘치고 재밌고 좋았어요. 퇴근길에도 삼삼오오 모여 서점에 들르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MB 때.. 김재철 사장 이후에 조직이 흐트러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경색돼 버렸어요. 파업 이후에 얼굴 자주 보이던 직원이 안 보여 물어보면 징계 받거나 유배 받았다고 하고, 그 때 눈물이 참 많이 났었어요. 이후로도 가족과 같은 밝은 분위기는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2012년 이전의 밝고 따듯했던 MBC가 많이 그리지요.

Q. 조합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A. 항상 베풀 게 없어 미안한 마음입니다. 찾는 책 못 구해 드리면 너무 마음이 안 좋고요. MBC에 30년 넘게 있을 수 있었던 건 여러분이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않았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늘 고마워요. 조합에서 생일 선물로 나눠주는 문화상품권도 서점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말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노보를 통해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 전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의도 사옥 시절 (2013)



상암 사옥 로비 (2017)



상암 사옥 지하1층 (2021)

소년 범도와 MBC 구내서점

어린시절 밤에 가끔 꾸던 꿈이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가서 허름한 건물에 내립니다. 건물 안은 무척 어두웠고 삐그덕 소리가 나는 오래되고 위험한 나선형의 목조계단이 있었습니다. 위태위태하게 가슴을 조이며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아주 낮은 문의 여러 방들이 나타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 때마다 한번도 본적 없는 멋진 풍경과 사건들이 펼쳐졌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나면 언제나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이 꿈이 참 좋았습니다.

유치원 시절에 매일 나만의 공간을 찾아갔습니다. 유치원에서 오자마자 가방을 집어 던지

고 서너 정류장 거리의 야산에 매일 갔습니다. 어머니가 매번 어디 가냐고 물으실 때마다 ‘본부’에 다녀온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산에 있는 한 그루의 소나무를 보러 가는 겁니다. 전 나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나무 곁에만 가면 그냥 마음이 편하고 신비한 느낌도 들고 이유 없이 마냥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을 만나거나 일이나 일터를 선택할 때도 어린시절 이런 꿈과 느낌이 들면 언제나 최선의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제 주위의 모든 사람들, MBC와 좋은 동료들. 아나운서란 일이 그렇습니다. 좋은 책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서 산티아고가 자신을 언제나 응원하고 믿어주는 어린 소년 마눌린을 통해 자신 안에 있는 소년 산티아고를 발견하고 힘을 얻듯이 좋은 책은 언제나 저에게 소년 범도의 꿈과 느낌

을 생각나게 합니다. 너무 부족한 저 자신이지만 소년 범도의 눈빛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겨울나무 위로 쌓이는 하얀 눈이 꿈꾸는 소년의 눈빛 같습니다. 지하1층 MBC 구내서점에 가서서 소년소녀 시절의 꿈과 느낌, 눈빛을 떠올리게 하는 책들을 만나 보세요. 커피 한 잔 들고 구내서점에 가서 동료들과 얘기도 나누고 마음껏 책과 잡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료를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언제나 소년 같은 미소로 최상철 사장님이 반겨주실 겁니다.



김범도 조합원
서울지부/아나운서

[2분기] 민실위 선정 좋은 보도 · 프로그램

2021년 2분기에는 한 명의 조합원이 좋은 보도상과 좋은 프로그램상을 동시에 석권하는 이변이 벌어졌습니다. 좋은 보도상은 보도부문에서, 좋은 프로그램상은 편재부문에서 별도의 민실위 심사위원단이 점수를 매겨 심사하는 구조로 공정하고 엄정한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인 만큼 그대로 시상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좋은 보도상

좋은 프로그램상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조직적 은폐



신재웅 조합원
서울지부

▷ 위 조합원은 군내 성폭력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사연을 바탕으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성추행 사건의 전모, 군내 조직적인 은폐와 2차 가해 등을 끈질기게 추적했습니다. 특히 인권 차원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배제했고, 책임감을 가지고 확인한 실체적 진실을 토대로 잘못된 군 문화를 폭로해 이를 사회적 의제로 공론화해 개선책 마련까지 이끌어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수상소감

제보를 받자마자 다른 취재를 뒤로하고 이야기를 들으러 갔습니다. 고인의 부모님과 가족들을 차례로 만나 여러 시간에 걸쳐 인터뷰를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이 겪었던 마지막 80여 일, 그 삶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소상히 털어놓았습니다. 취재를 하면 할수록 사건이 단순한 개인적인 사안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다! 고인의 삶과 죽음 이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누가 왜 어떤 이유로 고인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밝히고 싶었습니다. 고인의 부모님과 했던 약속을 떠올리며 부족했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취재에 임했습니다. MBC 보도로 사건이 공론화된 지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가족들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망망한 취재의 바다에서 키를 잘 잡아주신 팀장과 시경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1년 전의 외침...5.18 직전 평화롭던 광주



홍진선 조합원
광주지부

▷ 위 조합원은 1980년 5월 18일 피의 일요일이 닥치기 직전 광주에서 사흘 동안 열렸던 '민족민주화성회'의 2시간 분량 육성 테이프를 입수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육성 테이프를 통해 전해진 시민들의 외침은 당시 광주를 적시던 민주화의 목마름이자 열망을 생생하게 전달해주었고, 여전히 미흡한 5.18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보여주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수상소감

지난 5월에 방송된 '41년 전의 외침-5.18 직전 평화롭던 광주'가 민실위의 좋은 보도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41년 전 5월 14,15일의 광주의 소리를 담은 테이프를 입수해 한 대목 한 대목 소리를 받아냈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녹음테이프 속에서 학생들을 응원하던 광주시민들의 목소리와 단호한 학생들의 외침에 몸이 떨렸고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당시의 그들은 몰랐지만 곧 그들에게 닥친 비극을 지금의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것을 41년만에 세상에 나온 녹음테이프가 알려주었습니다. 뉴스데스크에 시사피디 타이틀로 리포트를 한 것이 유례가 없었지만 선배와 동료들의 응원 속에서 보도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조규백 당시 전남대방송기자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PD수첩 <국정원과 하얀방 고문>



장호기 조합원/서울지부

▷ 위 조합원은 27년 동안 국정원에서 근무한 직원을 단독 인터뷰하여, 국정원이 2012년 대선의 재외국민 투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시도를 했음을 밝혔습니다. 선거에 있어 중립을 엄중히 지켜야 하는 정보기관이 댓글 조작 외에도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시켰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수상소감

제보자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에게 미행을 당하고 있었고 그보다 앞서서는 아주 좁은 하얀 방에서 고문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협 속에서 뻔 나온 그의 주장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대부분 사실이었습니다. 수십만 일본 동포들의 참정권은 무참히 짓밟혔으며, 국가의 세금은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 주체가 바로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이라는 사실은 정말 공포스러웠습니다. 방송은 끝났지만 올바른 진실이 빛을 볼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계획입니다. 이 값진 상의 모든 감사함은 지금도 묵묵히 국정원에 맞서 싸우고 계신 체보자에게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방송한 <2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옹과 사샤의 광주일기



홍진선 조합원
광주지부

▷ 위 조합원은 미얀마인 마옹과 사샤를 통해 41년 전 광주의 5월과 닮은 미얀마의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미얀마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 석 달 넘게 5.18민주광장 집회에 참여하며, 미얀마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연대하는 모습까지. 미얀마인에게 희망의 상징이 된 광주의 정신을 함께 생각하고, 민주주의와 평화에 대한 관심을 높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수상소감

'마옹과 사샤의 광주일기'가 민실위 상을 받게 되어 기쁩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 제작을 기획할 때 주변에서 미얀마의 민주화투쟁 전망이 밝지 않다, 미얀마 현지 촬영이 힘든 상황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기 힘들 것이다, 하는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현장취재를 통해 광주의 시민사회가 광주에서 활동하는 미얀마 근로자나 유학생들과 얼마나 뜨겁게 연대하고 있는지를 느껴왔었기에 발걸음을 땀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는 것처럼 보여도 이기는 싸움이 있다'는 것을 광주와 5.18을 통해 배워왔기 때문에 달릴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한 응답은 5.18의 정신이라고 배웠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이 올 초 방송을 제작할 때보다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통스런 그들의 비명에 우리는 어떤 응답을 계속해야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더 고민하고 답을 찾아 가라는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신 것 같아 마음이 먹먹합니다.

[3분기] 민실위 선정 좋은보도·프로그램

2021년 3분기 민실위 좋은 보도· 프로그램에는 전국에서 21개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민실위는 매 분기마다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는 물론 노동과 인권, 환경, 사회적 약자 문제에 천착하며

'노동조합의 가치'를 구현한 좋은 보도· 프로그램에 대한 시상상을 이어가겠습니다.

민실위는 저마다 현장에서 공영방송의 가치를 실천하는 조합원 여러분의 보도· 프로그램을 항상 응원합니다.

비대면 복지 사각지대 '고독사' - 길이 삼촌의 죽음



홍신영·장영근 조합원
서울지부

▷ 위 조합원들은 코로나 비대면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무관심에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고독사 현장을 발굴하고 직접 참여하며 소외계층의 그늘을 함축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특히 인권 존중 차원에서 자극적인 영상과 표현을 배제했고, 고독사가 누구의 문제가 아닌 모두의 문제를 명확히 해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냈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수상소감

떡다 남은 도시락 옆 차 안에서 숨진 지 한참 지나서 발견된 50대, 밀린 월세를 받으러 온 집주인에 의해 숨진 지 몇 달 만에 발견된 30대. '단절'이 일상이 되어 버린 코로나 정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고독사 문제를 단순 사건 사고로 처리하면서 쌓인 먹먹함과 부채감이 이번 보도의 시작이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어서요. 현장에서 답을 찾아보고 싶어요." 다소 황당한 부탁을 유일하게 수락해준 김새별 특수청소 업체 대표와 고인의 마지막 자리를 하루 종일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겨준 손하늘, 장영근, 허원철 기자가 있었기에 보도가 가능했습니다. 고독사 이전에 고독생이 있고, 고독사회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고독사는 모두의 문제라는 거. 저희가 현장에서 느낀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오히려 더 큰 위로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뜻 깊은 상으로 이번 취재 의미를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신영 조합원)

아파트 중심도시가 돼버린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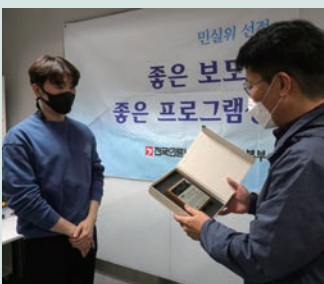
전윤철·김철원 조합원
광주지부

▷ 위 조합원들은 아파트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광주지역 아파트 문제의 심각성을 심층 조명했으며, 거수기 노릇에 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고발해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학동 건물 붕괴사고의 배경에 부동산 욕망도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 성찰과 개선의 필요성을 환기시켰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수상소감

부동산 취재는 언제나 어렵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이루지 못할 내 집 마련의 꿈이 다른 이에게는 일확천금의 한판승부가 되는 것처럼 욕망의 양상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역경제와 기후변화에 끼치는 영향과 도심경관까지의 문제까지 더하면 보도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은 그래서 더더욱 취재보도해야 하는 당위가 될 것이다. 그러나 건설자본이 장악한 지역언론에서 아파트 문제를 거론하기는 쉽지 않다. 이는 건설자본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지역 공영방송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6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근본 원인이 결국은 아파트로 돈벌 욕심에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보도였는데 눈밝은 동료들이 그 가치를 인정해주어서 감사할 따름이다. (김철원 조합원)

PD수첩 <부당 거래, 국정원과 日 극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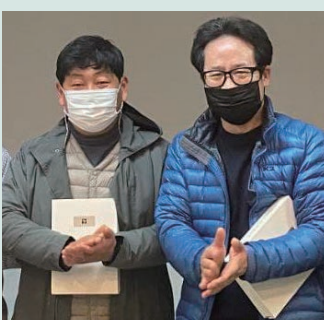
장호기 조합원/서울지부

▷ 위 조합원은 국가정보원이 일본 극우 세력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군대, 검찰 이상으로 통제가 엄격하여 취재가 쉽지 않아 언제나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받아온 국정원에 대한 밀도 있는 취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진가를 보여줬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수상소감

지난 11월 17일 제보자는 또 한 번의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 진실을 울부짖었던 제보자는 또다시 진실을 증명해 내야 했고 또 좌절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건 방송을 통해 엄연히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제보자는 여전히 뿌연 안갯속에 놓여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방송이 정말 제보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맞는 것인지 고민도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한줄기 빛처럼 큰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게 진실의 편에 서는 좋은 프로그램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집 다큐 <노래하라! 저항하라! - 항일음악 6천곡 대발굴>



김지훈·김훈 조합원
대전지부

▷ 위 조합원들은 <노래하라! 저항하라!>를 통해 민족의 암흑기인 일제강점기를 버텨내게 하고, 독립의 마음이 담긴 '항일음악'을 조명했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항일음악 6천 곡을 발굴하는 과정을 밝히고, 복원된 대표곡을 후세에 보여줌으로써 민족정신이 깃든 항일음악에 대한 관심을 높였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수상소감

"우리가 항일음악을 연주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는 것 자체가 독립운동이라고 봅니다." 항일음악으로 직접 학교 종소리를 만든 경남 밀양 미리벌초등학교 6학년 석하량 학생의 말입니다. '한일병탄 이후 백년이 지난 지금, 우리 아이들이 항일음악의 가치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었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흐릿하게 남겨진 항일음악들을 어떻게 지금 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현대적으로 되살려낼 수 있을까?' 항일음악의 현대적 복원 과제는 단국대, 중부대 교수님들과 대전시립교향악단, 대전천문대어린이합창단의 적극적인 도움 덕에 가능했습니다. '독립투사가 직접 부르는 항일음악'은 미완의 프로젝트로 남았습니다. 지금의 AI 음성복원 기술로는 40분 분량의 실제 육성이 필요하지만 확보된 독립군 육성은 10분 남짓. 빠르게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조만간 100년 전 독립군들이 힘차게 부르는 항일음악 복원이 가능해 질 거란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번 다큐를 계기로 지역 교육청이 항일음악 활성화에 나선 만큼, 어서 빨리 교과서에 항일음악이 실려 한민족이 어떻게 고통스러운 역사를 견뎌내고 오늘 이 자리에 도달했는지 교육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